Strategy Weekly

국민성장펀드 출범, 결국 중요한 것은 성장과 실적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 국민성장펀드 오는 12월 10일 공식 출범. 조직과 투자 의사결정 체계 구체화
- 상징성과 자금 유입 기대감에 첫 투자 업종에 관심 높음. 10일 발표 예정
- 정책성 펀드의 역사.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정책 모멘텀과 시장 유동성은 주가에 긍정적. 결국 성장과 실적 뒷받침 중요

국민성장펀드 12월 10일 출범. 첫 투자 업종에 관심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2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보증기반 기금채와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을 통한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위험을 선부담하고, 나머지 75조원은 금융권과 일반국민 공모자금 등 민간자금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투자 수익을 공유할 예정이다**(그림1)**. 직접 지분투자는 물론, 인프라 투자와 융자, 간접투자 및 초저리대출까지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를 위한 조직과 투자 의사결정 체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그림2). 지난 11월 국민성장펀드를 총괄할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산업은행 내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 프로젝트 접수 및 예비검토, 금융지원 주선, 자금 집행, 운용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의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구성될 방침이다. 투자 안건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재계 대표급 인사가 포함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구성돼 투자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범부처 실무 기구인 '국민성장펀드 추진지원단'도 편성되어 정부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프로젝트도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펀드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인해 1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정부는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안건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AI 또는 반도체 분야에서 1호 투자 업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인 만큼 1호 투자 발표 이후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성 펀드의 역사.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역사적으로 정부 정책에 기반한 정책성 펀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녹색 펀드, 통일 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소부장 펀드, 뉴딜 펀드까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을 기반으로 펀드가 만들어지는 정책성 펀드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논란 사이에 위치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이라는 3대 분야를 통해 단기 경기침체 대응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했다. 또한, 1월 13일 녹색성장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서 4년간 6조 3천억원 규모의 '녹색기술 R&D 사업'을 연계 추진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했다. 2009년 4월부터 녹색 펀드들이 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펀드가 출시되면서 열풍이 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표현하며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어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원칙 발표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기업 활동과 자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융권은 2014년 4월 이후에 다양한 통일 관련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 소부장 펀드, 뉴딜 펀드가 정책성 펀드로 주목받았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2018년 1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 방안의 일환으로 4월에 코스닥 벤처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하며 시장 관심을 높였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에 우선배정 혜택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했다. 소부장펀드는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소부장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하면서 인기를 끌자, 금융투자협회의 제안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의 300억원 출자를 중심으로 소부장 펀드를 출시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가장 유사한 형식의 정책성 펀드는 뉴딜 펀드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뉴딜 분야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뉴딜 펀드는 (1) 정책형 뉴딜펀드, (2) 뉴딜 인프라펀드, (3) 민간 뉴딜펀드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그림3)**.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이 4조원을 투입해 모펀드를 만들어 위험을 먼저 분담하고, 민간자본이 13조원 규모의 자펀드에 투자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021년 3월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 재정 600억원)과 11월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 재정 2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약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또한 공모형인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를 구성해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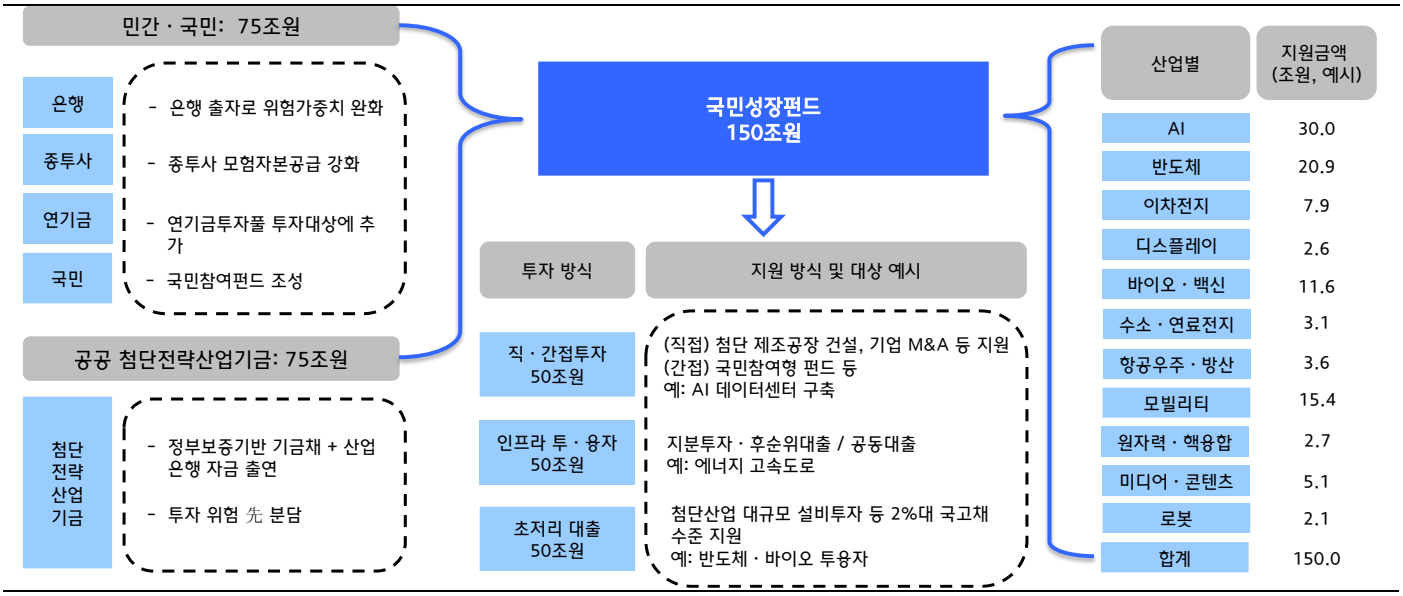
정책 모멘텀과 시장 유동성은 주가에 긍정적. 결국 성장과 실적 뒷받침 중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한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책성 펀드를 통해 정부는 당시대 국가적으로 중요성과 성장성을 가진 분야에 투자한다.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정책 모멘텀과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과거 정책성 펀드의 런칭 초기 성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 가능하다**(그림4~8)**. 녹색 펀드의 경우 2009년 4월 미래에셋 녹색성장 펀드가 런칭되었고, 이후 3개월 가량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다. 하지만 이후 성과는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점차 수익률이 둔화되었고, 대부분의 펀드가 청산되었다. 통일 펀드도 2015년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청산 단계로 이어졌다. 코스닥 벤처펀드와 소부장 펀드의 경우 견조한 성과를 장기간 이어갔지만, 뉴딜 펀드는 수익률이 부진하자 인기가 빠르게 식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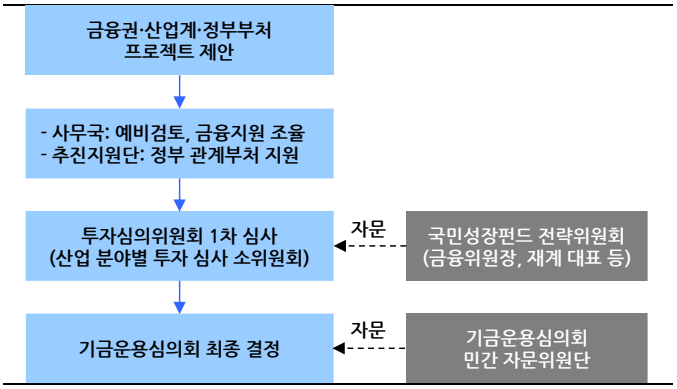
정책성 펀드의 주가 방향성은 명확하다.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인기를 끌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종/기업의 성장과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 국내 증시에서 올해 급등한 반도체, 조선, 기계, 방산, 화장품 등의 업종은 정책 모멘텀과 관계 없이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출과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우상향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산업이 성장해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과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의 런칭은 단기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인 주가는 해당 업종과 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해 수출과 실적이 우상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림 1〉 국민성장펀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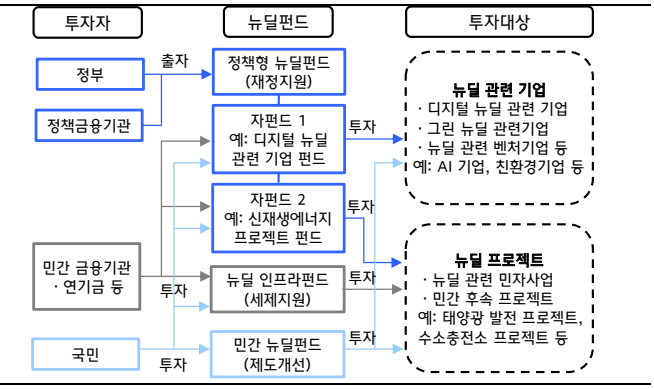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현대차증권

〈그림 2〉 국민성장펀드 투자 의사결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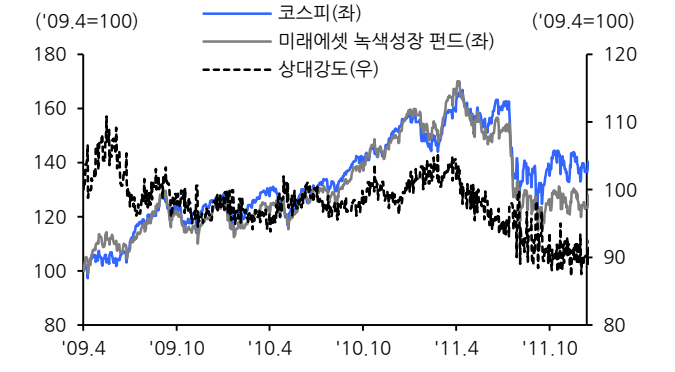
자료: 언론 내용 종합, 현대차증권

〈그림 3〉 뉴딜펀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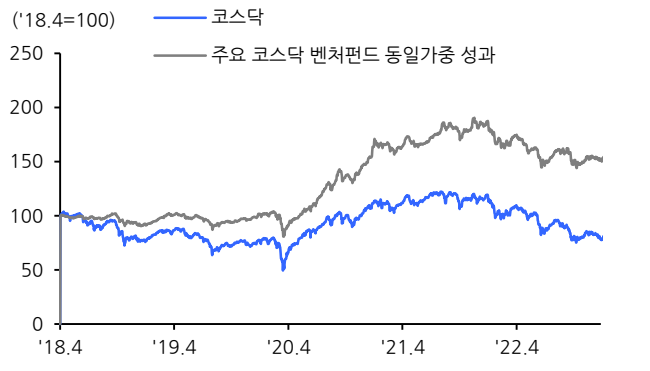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현대차증권

〈그림 4〉 녹색 펀드, 초기 강세 후 성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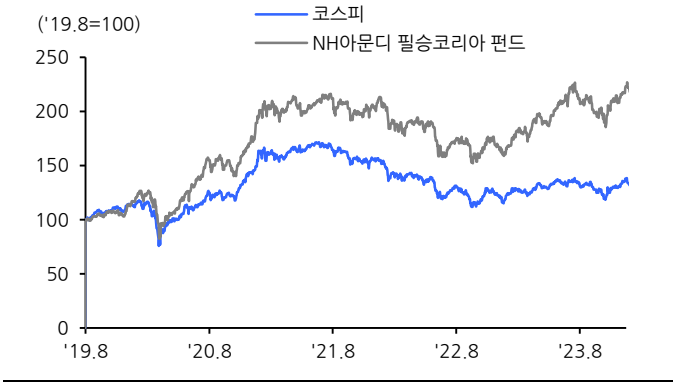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5〉 코스닥 벤처펀드 성과 비교적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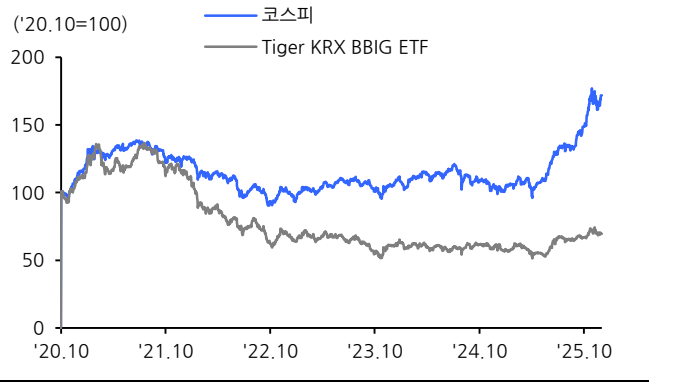
주: 브레인코스닥벤처펀드, 삼성코스닥벤처펀드, 하나UBS코스닥벤처펀드,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펀드의 동일가중 성과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6> NH아문디 소부장 펀드 성과 비교적 견조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7> 뉴딜 펀드는 성과 부진에 관심 낮아짐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